
스티글레르를 통해 본 정보기술의 파르마콘적 의미와 돌봄으로서의 앞*

김재희 (을지대학교, 조교수)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기억기술: 지성적 삶의 근본조건
- III. 주의: 돌봄으로서의 사유 역량
- IV. 디지털 파르마콘과 앞의 빈곤화
- V. 기억기술의 전환: 계산에서 돌봄으로
- VI. 나가는 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디지털 정보기술에 대한 스티글레르의 비판적 진단과 해법을 해명하고 그 의미를 살펴본다. 계산가능성과 데이터량으로서의 정보 개념에 근거한 알고리즘 통치성과 전면적인 자동화는 삶에 대한 주의를 포획하여 지성적 사유능력과 앞의 빈곤화를 초래하고 있다. 기술적 자동성을 활용하여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의 능력을 회복하는 치유작업이 요구된다. 스티글레르에 따르면, 기술적 대상들은 하이퍼-물질적으로 외재화되고 체외기관화된 기억으로서 본질적으로 파르마콘(독/약)이다. 디지털 연합환경의 잠재성을 독에서 약으로 전환시키고, 자동화 기술로부터 비-자동화 역량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익추구의 계산이 아니라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 A2A03045237).

지식을 공유하고 계승하며 삶을 돌보는 관점에서 기술과 지식의 관계를 재사유해야 한다.

주제어: 스티글레르, 파르마콘, 정보기술, 지식, 돌봄

1. 들어가는 말

플라톤은 『파이드로스』에서 참된 인식과 관련된 영혼의 활동으로 ‘아남네시스(anamnesis)’와 ‘휘폼네시스(hypomnesis)’를 구분한다. 둘 다 ‘기억 또는 상기’로 번역할 수 있으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아남네시스는 자신의 내부에서 과거의 내용을 그대로 떠올리는 ‘자발적 기억’이라면, 휘폼네시스는 상기 대상과 전혀 다른 외부 대상, 즉 휘폼네마타(hypomnemata)의 도움으로 과거 내용을 떠올리게 되는 ‘도구적 기억’이다. 플라톤은 당시 대표적인 ‘휘폼네마타(기억을 돕는 도구)’였던 ‘문자’를 영혼의 순수한 기억 능력과 진리와의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 폄하한다. ‘문자’를 발명한 테우트 신은 ‘기억과 지혜를 증진시키는 묘약’이라고 문자사용을 권유한다. 기억을 연마하고 망각을 막는 것이 진리를 인식하는 조건이라고 할 때 문자는 기억의 약점인 일회적 휘발성을 보완할 수 있는 ‘약’으로서 유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플라톤의 입장을 대신하는 이집트의 타무스 왕은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 문자에 의존하여 영혼의 ‘자발적 기억’ 능력이 감퇴하고, 지혜가 아니라 ‘지혜처럼 보이는 것’을 믿게 될 뿐이라고 문자의 ‘독’을 들어 문자사용에 반대한다. ‘자발적 기억’은 자기 내부로부터 영혼의 자발적 힘으로 진리에 도달하는 것인데, ‘말’은 생생함을 간직한 이 ‘살아있는 진리’를 시공간적 차이 없이 직접 그대로 전하지만, 기억 도구(휘폼네마타)인 ‘문자’는 생명 없는 ‘죽은 진리’, 참된 지식이 아니라 ‘유사-지식’을 전한다는 것이다. 『파이드로스』에서 문자는 테우트 신과 타무스 왕 모두에게 동일한 ‘파르마콘(pharmakon)’으로 언급되지만, 전자는 치료약의 측면을, 후자는 유해한 독의 측면을 강조한다.

‘자발적 기억’과 ‘도구적 기억’의 대립, 그리고 기술적 도구를 사용한 기억의 외재화가 곧 지적 능력과 지식의 손실이라는 플라톤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유

호한가? 현대의 대표적인 ‘휘폼네마타’인 스마트폰은 무한히 재생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것으로 우리의 기억 능력을 확장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체감하듯이, 자발적 기억의 무능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디지털 기록물들은 사건의 현전성이 디지털 정보공간에서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에 의한 ‘팩트 체크’의 가능성과 유효성도 보장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2016년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포스트-트루스(post-truth)”를 그해의 단어로 선정하고,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적인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했다.¹ 포스트-트루스 현상은 자동화 사회의 디지털 기억 도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기억과 지식의 정보기술적 외재화가 ‘진리 또는 진실’과 관련되지 않고 ‘진리나 진실처럼 보이는 것’에 관련된 인지 편향이나 확증 편향의 강화에 점점 더 기여하는 면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로 전면화된 비대면 원격 수업에 관한 분석은 디지털 장비들로 보충할 수 없는 현장 수업의 생생함과 직접성이 사라짐과 동시에 교육 효과의 하락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²

지속가능한 삶의 복지와 풍요로운 미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지식의 세대 간 전승, 과거 지식의 새로운 지식으로의 변형,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

1. 리 매킨타이어, 『포스트트루스: 가짜뉴스와 탈진실의 시대』 김재형 옮김, 두리반, 2019, 19쪽.
2. 안상우, 「코로나 학력 저하 첫 확인」, 『SBS』, 2021.06.02 (<https://news.v.daum.net/v/20210602203915794>, 2021년 6월 2일 접속); 최상원, 「코로나 온라인 수업 뒤 초등생 학력 ↑, 고등생 ↓」, 『한겨레』, 2021.05.17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995608.html>, 2021년 5월 17일 접속); 오중호, 「코로나19 비대면 원격수업 여파와 과제는?」, 『KBS』, 2021.05.1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87723>, 2021년 5월 17일 접속). 이 기사들은 특히 초등교육보다 난이도가 높아진 중등교육에서 교육효과의 하락과 학력 격차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경우는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역량과 관련하여 결론이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 대학교육의 질은 주로 ‘유의미학습’에 의해 결정된다. ‘유의미학습’은 학습자가 과제에 깊게 몰입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인지구조를 변형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기억하거나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분석, 비판, 평가와 같은 고차적인 인지적 활동을 요구하며,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필요하다. 유의미학습의 성과는 기술적 매체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교수전략으로 대면 교육의 효과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식의 형성과 교육 효과에서 기술적 조건의 ‘적합한 활용’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분명하며, 비대면 원격 교육의 활용은 다각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참고: 홍성연·유연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교육환경에서 학습성과 영향 요인 분석」,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6(3), 2020, 957~989쪽)

는데 적합한 결정으로 집단적 이해를 번역할 수 있는 능력들의 배양이 필요하다. 첨단 디지털 정보기술에 기반 한 오늘날, 지식의 전송과 변형, 이를 통해 미래에 관한 좋은 결정들을 만들고자 하는 개인과 집단의 능력이 오히려 위협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식의 조건들과 지식 그 자체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 적응하지 못한 대학과 교육제도 일반에서 나타나듯이, 교육과 연구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오직 시장과 관련해서만 가치를 평가하는 이데올로기는 '다른' 미래의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재발명의 과정을 모색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자동화 사회의 디지털 정보기술과 지식의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재-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스티글레르(B. Stiegler)의 비판적 기술철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티글레르는 BC 4세기에 플라톤이 했던 우려가 첨단 디지털 정보기술 기반의 자동화 사회에서 극명하게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디지털 정보기술에 기초한 '도구적 기억'의 일반화가, 우리 모두를, 자신의 기억과 지식을 기계에게 위임하여, 진리에 도달하는 '사유의 역량(아남네시스)'을 상실하고 어떻게 살아야하는지에 대한 압조차 박탈당한 프롤레타리아로 만들고 있다고, 정보 자동화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글레르는 회생의 가능성 역시 디지털 정보기술에서 찾아야한다고 본다. 그는 플라톤의 우려를 인정하지만, 플라톤의 관점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기억'과 '도구적 기억'의 대립 관계와 기억의 기술적 도구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재사유할 것을 제안한다. 사라져가는 자발적 기억의 사유 역량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가 긴급한 상황인데, 이 투자는 오히려 파르마콘인 휘폼네마타에 해야 한다고 그는 역설한다.

이 글에서는 스티글레르가 그 자신의 독특한 '파르마콘론(pharmacology)'과 '기관론(organology)'의 관점에서 어떻게 디지털 정보기술과 지식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안하고 있는지, 나아가 정보자동화 사회의 새로운 방향 설정에 어떤 의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기억기술: 지성적 삶의 근본조건

플라톤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모든 지식의 조건들은 근본적으로 기술적이다. 스티글레르는 기술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지성의 근본조건이라고 주장하며, 우리의 기억과 지식의 형성에서 분리불가능한 것이 바로 기술적 매체인 ‘휘폼네마타’라는 것을 강조한다.

데리다(J. Derrida)는 「플라톤의 약국」³에서 ‘기억의 원초적인 기술성’을 밝혀내고 있는데, 스티글레르는 이로부터 기억기술(mnemotechnics)의 ‘파르마콘-논리’를 가져온다. 데리다에 따르면, ‘도구적 기억’과 ‘자발적 기억’의 대립, 내부와 외부의 대립, 살아있는 기억과 죽은 기억의 대립, 말과 문자의 대립은 불가능하다. 양자의 관계는 위계적인 이분법적 대립이 아니라 ‘대체보충(supplément)’의 분리불가능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진리는 자발적 기억이 보여주는 영혼의 자기 대화(auto-affection, 스스로 말하는 것을 스스로 듣는 것)에서 그 현전성과 순수성이 보존될 수 있다. 말은 현전하는 진리와 분리되지 않은 채 시공간적 차이 없이 직접적으로 진리의 의미를 전달한다. 플라톤이 언급했듯이, 휘폼네마타인 문자는 ‘파르마콘’이다. 문자는 직접적 대화가 불가능한 시간과 장소에서 말을 대신하고 보충한다. 그런데 말이 전하고자 하는 독특한 의미(진리)는 유일무이한 것으로서 반복불가능한 것이면서 동시에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것으로서 보편적으로 반복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문자는 말의 이 의미(진리)를 보존하고 반복가능하게 하는 ‘약’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해석과 오해의 위험 속에서 그 의미(진리)를 훼손시킬 수 있는 ‘독’이다. 말의 약점을 보완하는 문자의 ‘보충’은 단지 임의적으로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다. 문자의 등장 자체가 말의 불완전성과 결여를 전제하므로 말에게 문자는 ‘필수불가결한 대체’이다. “글이 생생한 기억과 말에 외부적인 것이라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글에 의존적이 된다는 것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니까 순수 기억과 말에 어떤 결여가 있다는 것이다.”⁴ 따라서 문자는 말의 가능 조건이면서 동

3. Derrida, *La Dissémination*, Éditions du Seuil, 1972.

4. Ibid., p. 111.

시에 불가능 조건이라는 점에서 파르마콘(약/독)이다. 그런데 문자가 지닌 보존과 재생(반복가능성)의 기술적 역량은 엄밀하게 말 이후에 등장한 것이 아니다. 진리를 기억하는 영혼의 순수한 자발적 능력 자체가 이미 과거의 보존과 재생이라는 문자의 특성을 전제하고 있다. 아남네시스는 이미 휘폼네시스에 오염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순수한 역량이 아니라 그보다 더 원초적인 글쓰기(*archi-écriture*)의 흔적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원초적인 기록의 기술적 역량이 자발적 기억과 말의 가능조건으로서 선행한다. 스티글레르는 이러한 데리다의 통찰에 기초하여, 문자가 대표하는 모든 기억기술(휘폼네마타)은 '파르마콘'으로서 사유능력(자발적 기억)과 지식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동시 조건으로서— 근본 조건이라고 이해한다.⁵

스티글레르는 또한 앙드레 르루아-구랑(*André Leroi-Gourhan*)으로부터 '기억의 기술적 외재화가 인류학적 토대를 갖는다는 통찰을 가져온다. 르루아-구랑에 따르면, 인간은 직립보행과 더불어 자유로워진 손으로 도구를 만들고, 고개를 든 얼굴로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었다. 인간은 기술적 도구나 언어와 같은 인공물들로 그 자신을 '외재화한다(*exteriorize*)'.⁶ 스티글레르는 이것의 의미가 단지 인간이 돌도끼에서 인터넷이나 핵무기에 이르기까지 도구들을 만들고 사용한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공적 도구들을 만들면서 '제 3의 기억'을 창조한다는 것에 있다고 이해한다. 스티글레르는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가 기술적 진화, 즉 기억의 물질적 외재화와 더불어 진행되며, 특히 인간이 자연선택에 의한 적응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제 3 수준의 기억을 발명한 덕분이라고 본다.

1차 기억이 '유전적 또는 종적 기억(*genetic or specific memory*)'으로서 유전적으로 결정된 방식으로 행위하게 하는 기억이라면, 2차 기억은 '후성발생적 또는 신경적 기억(*epigenetic or nervous memory*)'으로서 신경계를 가진 생명체들이 갖는 과거 경험들에 대한 기억, 즉 개나 말의 훈련가능성이 보여주듯이, 후

5. Stiegler, *What makes life worth living: On pharmacology*. Cambridge, UK: Polity, 2010, p. 19.

6. André Leroi-Gourhan, *Le geste et la parole*, 2 vols, Albin Michel, 1964-65. (『행위와 말1』, 『행위와 말2』,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2016)

천적 학습을 통해 새로운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기억이다. 3차 기억은 ‘후성 계통발생적 또는 기술-논리적 기억(epiphylogenetic or techno-logical memory)’으로서 기술적 대상의 형태로 외재화된 기억이다.⁷ 이 기억은 개체의 ‘후성발생적 경험’에다가 세대 간에 공유된 경험의 ‘계통발생적 축적’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경험의 세대 간 전승과 공유’는 유전적 프로그램이나 개인적 경험에서 유래하지 않는다. 종적 기억(1차)이 개인의 경험에서 벗어나 있고, 신경적 기억(2차)이 해당 신체와 더불어 사라지는 것이라면, 기술적 기억(3차)은 ‘유산’으로서 누적되고 세대를 거쳐 전승된다.⁸ 따라서 3차 기억은 ‘자발적(anamnestic)’이면서 동시에 ‘도구적(hypomnesic)’이다. 개인의 내면화된 경험이 외재화되어 집단에 공유되고 다시 세대를 거쳐 다른 개인의 내면에 전승되는 방식으로, 내부/외부, 산 지식/죽은 지식의 대립을 가로지르기 때문이다. 3차 기억은 기술적 대상의 형태로 ‘외재화된 기억’이자 ‘객관화된 지식’이다. ‘인간화(hominization)’는 바로 이 3차 기억의 형성과 더불어 진행된다.

스티글레르는 이러한 기억의 외재화 과정을 또한 ‘체외기관화(exosomatisation)’ 과정이라고 해석한다.⁹ ‘체외기관화’는 기관발생(organogenesis)의 일종으로,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기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관들, 비-생물학적인 인공적 기관들을 만드는 작용이다. 체내(endosomatic) 기관발생이 유기적 기관들을 만드는 것이라면, 체외(exosomatic) 기관발생은 ‘비유기적이지만 유기화된 기관들’, 즉 기술적 인공물들을 만드는 것이다. 3차 기억은 인류의 체외기관화 과정의 열매이다. 생물학적 삶이 종들의 ‘체내’ 기관발생을 통해 진화한다면, 인간의 지성적 삶은 ‘체외’ 기관발생에 의해 진화한다. 르루아-구랑에 따르면, 원시인류는 타제석기를 만들 때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깎는 방향과 모양이 어떻게 나타날지 미리 예상하

7. Stiegler, *Technics and Time, 1: The Fault of Epimetheus*, Trans. R. Beardsworth and G. Collin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 177.

8. Stiegler, “Temps et individuations technique, psychique et collective dans l’œuvre de Simondon”, *Intellectica*, 1/2, n° 26-27, 1998, pp. 250~251.

9. “체외기관화는, 후기 구석기 이전(Upper Palaeolithic) 약 300만 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프레드 로트카(Alfred Lotka)가 1945년에 생명체의 기관발생의 중요한 변형으로 기술한 것이다.” (Stiegler, *Nanjing Lectures 2016-2019*, Open Humanities Press, 2020, p. 279)

고 이미 잘린 단면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즉 과거의 파지와 미래의 예지를 종합하면서 만든다. 삶의 지식은 ‘뇌, 손, 몸의 형성과 변형’과 같은 유기적 형태뿐 아니라 ‘도구, 기술, 언어’와 같은 비유기적 형태로도 물질화한다.

스티글레르는 기술적 존재가 인류의 외재화된 기억이자 객관화된 지식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그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비유기적인 타성적 물질)이 아니라 ‘하이퍼물질(hypermatter)’, 즉 ‘유기화된 비유기적 물질(organised inorganic matter)’이라는 점을 강조한다.¹⁰ 다시 말해 기술적 대상들은 체외기관으로서 물질적인 것도 생명적인 것도 아닌 하이퍼-물질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3차 기억은 하이퍼-물질적 기억(hyper-material memory)이다. 오늘날 지식은 추상적이고 비물질적인 ‘디지털 정보’의 형태로 변형되고 있는데, 스티글레르는 ‘하이퍼-물질주의 인식론(hyper-materialist epistemology)’을 통해 디지털 정보기술의 인식론적 영향력에 대한 비판적 대응을 촉구한다. “이 포스트-트루스 시대에, 노에시스의 능력들과 기능들을 체외기관발생적으로 재정의하기 위하여, 새로운 하이퍼-물질주의 인식론이 요구된다.”¹¹ 스티글레르의 하이퍼-물질주의 인식론은 지식의 하이퍼-물질적 구성을 간과하지 않도록, 즉 비물질적이고 계산적인 정보매체로 환원되지 않는 지식의 기술적 물질성을 되살려 삶의 돌봄 기능으로서 체외기관화된 삶의 긍정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스티글레르는 기술적 존재들로 형상화되는 ‘기억의 외재화와 체외기관화’는 지성의 감퇴나 지식의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지성적 차연(noetic différance)’의 특징이라고 이해한다. “지성적 차연을 체외기관발생으로서의 체외기관화의 견지에서 고려해야 한다. 이 ‘대체보충적 차연’은 데리다가 분석하지 않은 것이다. 노에시스를 체외기관화 과정에서 물질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¹² 가령, 글쓰기가 말의 의미를 철자법적으로

10. 스티글레르는 물질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한다. “타성적인 또는 비유기적인 물질(물리학), 유기적인 물질(생물학), 유기화된 비유기적 물질(기술공학), 탈유기화되고 재유기화된 유기적 물질(인간의 뇌, 교육받은 신체, 사회적 인공물들에 의해 변형된 신체, 신석기 이후 농업 선택을 통해 창조되어온 식물들과 동물들 포함)”, 이 중에서 “유기화된 비유기적 물질을 하이퍼-물질(hyper-matter)”이라 부른다. (Ibid., p. 279)

11. Ibid., p. 282.

12. Ibid., p. 308.

‘차이화’(공간적 간격내기)하고 시간적으로 ‘자연(시간적 간격내기)’시키듯이, 3차 기억의 기술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인류의 체외기관화는 생물학적 삶의 욕망을 다른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차연’의 작업이다. 인간의 삶은 단순히 생명-논리적인 것이 아니다. 3차 기억이 마련하는 기술적 상징적 환경은 단기적 충동의 에너지를 장기적 욕망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며 충동의 만족을 지연시킬 줄 아는 인간화를 가능하게 한다. 인간화는 지성적 역량에서 비롯하며, 지성적 삶은 ‘유기화된 비유기적 기관들’의 장착과 더불어 발달한다. 그런데 유기적인 체내기관들과 달리 비유기적인 체외기관들 사이의 관계는 — 체외기관들은 신체로부터 탈착되고 분리되어 시공간을 가로지를 수 있는 기관들이라는 점에서 — 비결정적이다. 그래서 체외기관화는 지성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불가능하게 하는 ‘파르마콘-논리적’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성과 체외기관 사이의 ‘대체보충적 차연’의 — 지성적 삶을 보충하는 체외기관이 지성적 삶을 대체하게 되는 — 관계에 ‘주의’하며 파르마콘적 기억기술을 ‘돌보는 것’이다.

인류의 지성적 삶은, 스티글레르에 따르면, 심리적 개체화(나), 집단적 개체화(우리), 기술적 개체화(나와 우리를 연결하는 기억기술적 환경)의 분리불가능한 삼중 개체화에 의해 구성된다. “개체화는 이중이 아니라 삼중이다. 즉 심리적, 집단적, 기술적인 이 각각은 다른 것들이 없이는 생각될 수가 없다. 그것들은 세 갈래의 변환적 관계 속에 있다.”¹³ 시몽동(G. Simondon)으로부터 가져온 개체화의 이 세 형태는, 각각 준안정적인 과정들로서, 그들 중 어느 하나도 다른 둘이 없으면 안 되는 방식으로, 다른 두 형태들과의 ‘변환적(transductive)’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변환은 서로 불일치하는 두 망막이미지가 제3의 차원에서 하나의 새로운 망막이미지를 형성하듯이, 불일치하는 항들 사이의 공존 관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형상화하는 방식이다. ‘나’의 개체화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개체화는 ‘나’들 사이에서, ‘나’와 ‘우리’의 관계는 ‘기술적 환경’ 안에서 각각 ‘변환적으로’ 발생한다. 심리적인 것, 집단적인 것, 기술적인 것, 이 세

13. Stiegler, *Symbolic Misery*, Polity Press, 2014, p. 70.

줄기가 상호 작용하면서 동시결정화(syncrystallization)하는 ‘심리적-집단적-기술적 개체화’는 세 수준의 개체화들을 ‘관통하면서 넘어서는(trans)’, ‘관(貫)개체화(transindividuation)’를 형성한다.¹⁴

지식의 모든 형태 또한 스티글레르의 기관학적 관점에서는, 세 수준의 ‘기관들(organs)’-개체를 구성하는 심신 기관들, 기술이 산출한 모든 종류의 인공적 기관들, 개체들을 조직화하는 모든 형태의 제도들과 집단들- 사이의 상호접속(interconnections)에 의해 형성된다. 지식은 기억기술적 장치들을 매개로 개체적 집단적 개체화 과정들과 연루되어 형성된다. 기술적 대상들은 심리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을 연결시키는 단순 매개체가 아니라, 개체적이면서 동시에 집단적인 개체화 — 즉, 관개체화 — 의 발생에 동등하게 참여한다. 가령, 글쓰기와 출판의 기억기술은 개인적 경험을 공유되고, 비판되고, 해석될 수 있는 사회적 공론장으로 연결하며, 이를 통해 개인들 간에 공유된 지식의 새로운 관개체화 회로를 생성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사회적 주체를 산출하는데 기여한다.

요컨대 스티글레르는 이러한 ‘파르마콘-논리적’이고 ‘기관-논리적’이며 ‘하이퍼-물질적’ 관점에서, 오늘날 디지털 자동화 시대의 기억기술이 어떻게 인간의 지성적 삶과 지식의 형성을 훼손하며 동시에 치료가능성을 열어주는지 해명한다.

III. 주의: 돌봄으로서의 사유 역량

기억은 과거를 보존하고 이를 현재로 연장하여 미래를 변화시키는 기능이다. 특히 3차 기억은 경험을 내면화하고 또 외재화하면서 하이퍼-물질적 형태로 지식을 공유하는 인류의 독특한 ‘지성적 활동’이다. 베르그손, 깡길렘, 화이트

14. 시몽동에 따르면, “그 본질에 따라 고려된 기술적 대상은 개체초월적(transindividual)이라 부르는 관계의 매체이고 상징이 된다.” 기술적 대상들은 탈착가능하고, 교환될 수 있고, 이전될 수 있는 퍼텐셜(전개체적 하중)을 담고서 개체초월적인 집단적 관계의 발생적 매체로 작동한다. 그러나 시몽동의 개체화론을 계승한 스티글레르는 플랫폼 자본주의에 의해 착취되는 디지털 3차 기억이 어떻게 지성적 깊이와 사유 그 자체를 제거하게 되는지, 산업화된 정보기술이 갖는 파르마콘-논리적 차원을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몽동을 비판한다. (김재희, 「기술과 개체초월성: 시몽동과 스티글레르」, 『변환철학』 제88집, 2018, 195~219쪽 참조)

헤드를 따라 스티글레르도 기억과 지성을 본성상 생명의 기능이라고 이해한다. 인간이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기억을 통한 지식의 활용으로 구체적인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단지 알기 위해서 아는 데 그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깡길렘에 따르면, “지식은 장애물의 축소를 통해 안전을 찾는 방법, 인간과 환경 사이의 긴장을 직간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일반적 방법이다. 지식의 목적은 인간이 세계와 새로운 균형을 찾게 하는 것, 인간 삶의 새로운 형태와 조직화를 낳는 것이다. 지식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실패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사려 깊은 합리성을 도출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성공을 위한 법칙을 찾는 것이다.”¹⁵

스티글레르는 이런 맥락에서 ‘생각(pensée)’이 특히 ‘돌봄(pensée)’과 관련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공교롭게도 불어에서는 ‘différance(차연)/différence(차이)’의 경우처럼, ‘penser(생각하다)’와 ‘panse(상처를 치료하다, 붕대를 감다, 가축에게 먹이를 주다)’도 발음상 동일하고 써 보아야만 서로 구분된다. 스티글레르에 따르면 “생각한다는 것은 돌보는 것, 관심을 기울이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차연을 만드는 것이다.” ‘무언가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단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돌보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 베르그손식으로 말하자면, 한마디로 ‘삶에 대한 주의(attention à la vie)’이다.¹⁶

스티글레르는 오늘날 디지털 기억기술에 의한 ‘주의(attention)’의 포획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이는 ‘주의’가 그 자체로 ‘돌봄’을 함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개체화와 집단적 개체화의 ‘인터페이스’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¹⁷ ‘주의’는 라틴어 ‘attendere(주의를 돌리다, 환자에게 주의를 기울이다, 그의 병을 돌보다)’에서 파생된 단어다. ‘주의를 기울이다(faire attention;

15. Stiegler, *Nanjing Lectures 2016–2019*, Open Humanities Press, 2020, p. 320, 각주. “단지 알기 위해서 아는 것은 먹기 위해서 먹는 것이나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것보다 더 분별 있는 것이 아니다.” (Canguilhem, *Knowledge of Life*, 2008, xvii, 같은 책에서 재인용).

16. Stiegler, “What is called caring? beyond the anthropocene” *Techné: Research in Philosophy and Technology* 21:2-3, 2017, p. 398.

17. Stiegler, “Relational ecology and the digital pharmakon”, *CULTURE MACHINE*, Vol 13, 2012, p. 1.

paying attention)는 ‘돌보다(*prendre soin; taking care*)’와 동의어이다. 그런데 관심 대상을 향해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단지 대상에 ‘집중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해 ‘사려 깊다(*être attentionné; to be thoughtful*)’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사려 깊음’은 문화적 태도로서 일종의 사회적 현상이다. 이 ‘주의’는 동물도 갖는 ‘경계(*vigilance*)’와 달리, 사회적 특성을 갖기에 교육을 통해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의’는 개체 차원의 심리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집단 차원의 사회적인 것이다.

‘주의’가 없으면 심리적-집단적 개체화도 발생할 수 없다. ‘주의’를 익히게 하는 ‘교육’은 심리적 개체인 사회적 존재가 그 자신을 심리적으로 또 동시에 집단적으로 개체화하는 과정이다. 심리적 개체는 끊임없이 변형되는 과정 속에 있으며 그 자체로 안정적 상태나 동일자가 아니다. 심리적 개체화의 과정은 집단적 개체화의 과정 속에 기입되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심리적이면서 집단적인 개체화의 분리불가능한 두 차원들 사이의 연결이 형성되고 구체화되는 것은 ‘교육 안에서’다. ‘주의의 형태들(*attentional forms*)’이 정교화되는 것은 집단적 경험을 배우면서, 세대들의 축적된 경험을 유산으로 받으면서, 개별 기억들의 관계체화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학문을 배우고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요컨대 글을 쓸 줄 안다는 것, 즉 문자 기록에 대한 ‘주의’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삶을 꾸려 나가는데 필요한 ‘노하우, 생활기술, 인지적이고 이론적인 지식들’은 모두 ‘주의의 형태들’에 속한다. 말하기, 글쓰기, 활쏘기, 도구 사용하기, 계산하기 등 수천가지 방식으로 사물을 ‘다루는, 즉 돌보는 것’을 배우는 것은 체외기관화가 인류의 삶의 초기부터 요구하던 ‘앎’이다. 인간의 기억은 본질적으로 외재화되고 하이퍼-물질적으로 객관화된다. ‘주의’는 이러한 물질적 기술에 의해 조건지어진다. ‘문화’라는 것은 개별 경험이 집단화되는 과정—심리사회적 기억이 기술적으로 외재화되고 매체화되어 관계체적으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발명된 “주의 형태들의 세대 간 전승”이다.¹⁸ 모든 사회들은 주의의 형태들, 지식의 유형들, 관심과 돌봄의 체계들, 자신과 타

18. Ibid., p. 4.

자를 돌보기 위한 기술의 유형들, 문화적 유형들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문제는 디지털 정보 기술시스템이 이 '주의'를 포획하면서, 심리적-집단적 개체화의 생성을 막고, 비판적 사유의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모든 수준-생태학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수준—에서 엔트로피 상태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스티글레르는 이런 상황이야말로 현 단계의 하이퍼-물질적 기억기술 상태에 대한 '주의/돌봄'을 투여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IV. 디지털 파르마콘과 앞의 빈곤화

3차 기억의 역사는 '기억기술'의 역사이며, 기억을 저장하고 재생하는 기술적 인공물, 즉 휘폼네마타의 변천사다. 기억기술은 문자, 아날로그, 디지털 등의 형태로 변화하며 상이한 방식의 '기록작용(grammatization)'으로 우리의 지성, 지식, 삶의 방식을 규제한다. '기록작용'이란 실제의 연속적인 흐름들을 시공간적으로 분절하고 물질화하고 이산화(discretization)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알파벳의 등장이 모든 지식의 기술-논리적 조건으로서 서구 정신의 단일화와 통제에 기여했듯이, 오늘날에는 이미지, 목소리, 신체, 제스처 등을 데이터와 정보 형태로 프로그래밍하는 기억기술 장치가 우리의 정신적 삶을 규제한다.

NBIC(나노테크놀로지, 바이오테크놀로지, 정보테크놀로지, 인지테크놀로지)의 수렴은 '정보'개념이 통치하는 시대를 열었다. 튜링, 새넌, 위너의 정보이론과 사이버네틱스가 등장한 이후, 정보는 '계산가능한 것', 물질적 매체와 독립적인 '추상적 형식'이 되었다. 정보의 디지털화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로지르며, 유기체는 비유기체는 모든 존재자들을 연결하는, '스마트'하고 '자동화'된 소통과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실현시키고 있다. 디지털 기억기술은 이제 '인간의 연합 환경'이 되어 '인포스피어(infosphere)'를 구축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 영역이 바이오스피어(biosphere)라면, 이제 인간은 생물학적 차원을 넘어서는 인포스피어에 거주한다.

정보철학자 플로리디(L. Floridi)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모든 정보 행위자들, 그들의 상호작용과 정보처리과정 등을 포함한 정보 환경 전체를 "인포

스피어”로 정의한다.¹⁹ 그것은 실시간 대면 대화처럼 소리와 영상을 직접 포착하는 오프라인과 아날로그 정보 공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전송 시스템인 인터넷이나 사이버공간으로 축소되지 않는다. 기존의 ‘정보사회’라는 개념은 정보를 ‘지식’의 확장된 버전으로 이해하고 인간과 정보의 관계를 인간의 편의와 실용적 목적을 돕는 기술적 도구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그러나 ‘인포스피어’는 이러한 인간중심적인 정보사회로 환원되지 않는다. ‘인포스피어’는 생명체 중심의 생태계조차 넘어서 AI를 비롯한 기술적 존재자들도 포괄하는 더 큰 존재론적 범주이다. 인간이 아닌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자들이 동등한 정보적 구성물이기에 자연물과 인공물, 생명체와 비생명체, 인간과 기계의 경계는 무의미하다. 비인간도 얼마든지 인간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알파고의 등장은 인간과 비인간을 포괄하는 더 상위 버전의 존재론적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플로리디는,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우리를 ‘접속되어 있는 정보적 유기체’, 즉 “인포그(Inforg)”²⁰라고 부른다. 사이보그로 개조하거나 유전자 변형으로 ‘향상된’ 존재가 아니더라도, 인류는 이미 ‘인포그’로서의 포스트-휴먼으로 살고 있다. 따라서 플로리디는 호모 파베르(homo faber)나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의 근대적 모델이 아니라, 세계를 창조적으로 제작하고 관리하는 ‘호모 포이에티쿠스(homo poieticus)’를 인포스피어 휴머니티의 모델로 제시한다. 인간은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다른 인포그들을 보호하고 번성시키면서 엔트로피의 증가를 막고 그들과 함께 인포스피어를 더욱 풍요로운 곳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갖는 윤리적 존재여야 하기 때문이다.²¹

그러나 스티글레르는 플로리디의 다소 낙관적 태도와 달리, 인포스피어에 내재하는 알고리즘 통치성의 부정적 측면과 인포그화된 인간의 지적 정신적 능력의 하락에 주목하면서 디지털 자동화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탈자동화의

19. Floridi, *The Ethics of Information*, Oxford, 2013, p. 6.

20. Ibid., p. 14.

21. 신상규, 「자율기술과 플로리디의 정보윤리」, 『철학논집』 제45집, 2016, 293쪽.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는 디지털 정보를 ‘파르마콘’으로 규정하고, 현대 자동화 환경에서 강화된 디지털 정보의 ‘독성’을 다시 우리의 지성과 창조적 발명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약’으로 전환할 방법을 긴급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파르마콘, 즉 약인 동시에 독이다. 마케팅이라는 목적과 단기적 이윤만을 위해 이용된다면 그것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사멸시키고 우리를 빈민화하는,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의 능력을 박탈하고 우리의 앎, 할-줄-앎과 살-줄-앎을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다.”²²

그렇다면, 스티글레르가 주목하는 디지털 파르마콘의 위험한 특징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계산적 정보가 지식을 대체하고, 자동화된 알고리즘이 삶에 대한 주의를 포획하여, 삶의 기예, 즉 ‘삶을 살아갈 줄 앎’을 낳는 지성의 독특성(singularity)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자동화 사회에서는 ‘데이터’와 ‘계산’이라는 기술-논리적 도식이 정보의 ‘선택’, ‘해석’, ‘결정’ 능력을 제거한다. 모든 종류의 데이터 계산으로부터 파생된 정보들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은 주체의 ‘해석’과 ‘결정’에 달려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록되고 분석되고 모델링되고 예측되며 추천을 통해 특정 행위를 유도하는 ‘빅 데이터와 AI의 결합’ 시스템은 추천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구성되는 프로필 주체를 만들어낸다. 스마트 마케팅과 인지자본주의가 계산될 수 없는 지성적 예지와 목적의 식성을 자동 생산된 예측으로 대체하며, “24/7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을 위한 알고리즘적 통치성”²³을 수립하고 있다. “자동화된 ‘지식’은 더 이상 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²⁴알고리즘의 힘은 앤더슨(Chris Anderson)의 말대로 결국 행위 규범이나 삶의 모델을 산출하던 ‘이론’의 쇠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스티글레르는 진단한다.

정보 자동화는 또한 문화와 상징계를 형성하는 관계체화 과정을 침해한다.

22. 스티글레르·키루, 『고용은 끝났다, 일하여 오라!』 권오룡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8, 23쪽.

23. 스티글러, 『자동화 사회 1: 알고리즘 인문학과 노동의 미래』, 김지현 외 옮김, 새물결, 2019, 192쪽. (이 역서는 ‘스티글레르’를 영어식 발음에 따라 ‘스티글러’로 번역하고 있다)

24. 위의 책, 174쪽.

언어의 다양성은 관용어(idiom: 집단적인 것)와 개인어(idiolect: 개인적인 것) 두 차원의 변환 작용으로 형성되는 관계체화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언어적 수행들을 재설정하는 기술-논리적 수행성이 대화에서의 기호적 다양성과 의미의 지성적 확산을 평균치의 계산적 통제 아래 놓으면서 언어 수행능력을 광범위하게 궁핍화한다. 어휘력 부족이나 맞춤법 제대로 쓰기 능력의 하락은 글쓰기의 자동 완성과 자동 교정 기능의 효과 때문이다. 스티글레르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생리학적 크레틴병(요오드 결핍에 의한 백치증)과 같은 “지성적 크레틴병”²⁵(지성 능력의 결핍에 의한 백치증)이 확산되고 있다고 일갈한다. 관용어와 개인어 다양성의 엄청난 축소는 지성에 기초한 지식 형태들의 파괴와 빈곤화로 이어진다. 닫힌 집합과 폐쇄적 조각자들을 통해서 점점 더 해체되고 덜 복잡해지고 있는 소셜네트워크는 일종의 엔트로피다.²⁶ ‘이해’의 분석적 기능을 자동화하는 언어 산업의 ‘기록작용’은 관용어와 개인어의 강화보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언어 살해에 기여하며 관계체화의 새로운 회로 생성을 막고 있다.

무엇보다 ‘주의’의 상업적 포획이 ‘지연된 시간의 제거’를 통해 탈-지성화와 지식의 해체를 가속화한다. 디지털기술은 소비 자본주의 생산자들에게 막강한 힘을 부여한다. 거대한 스케일로, 외과적으로 세분화된 방식으로, 의식들에 접근 가능하다. 엄청난 수의 소비자나 사용자의 데이터를 채굴하여 욕망과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 디지털 연합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주의’를 포획하여 교육을 통해 전승되는 지식을 내면화할 시간과 사유 능력을 빼앗는다. 가령, 문자적 기억기술은 본질적으로 ‘시간적 지연’을 수반한다. 사건을 포착해서 보내는 것과 그걸 받아서 해석하는 것 사이에는 코드화-탈코드화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억기술은 정보를 빛의 속도로 전송하며 이해와 해석에 요구되는 지성의 활동과 ‘시간적 지연’을 제거하고 자동화한다. ‘지연된 시간의 제거’는 ‘자발적 기억’을 위한 모든 기회를 앗아간다. 정보의 증가는 지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정보는 늘 현재하고 있지만, 그 가치는 신속하고 신선한 상품으로서의 가치일 뿐, 항구적이고 영속적이며 반

25. Stiegler, *Nanjing Lectures 2016-2019*, Open Humanities Press, 2020, p. 323.

26. Ibid., p. 322.

복가능성을 갖는 ‘지식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다.

스티글레르는 디지털 기억기술에 의한 자동화 사회가 기술적 인식-지성적 종합능력-발명능력을 가진 ‘기술자-주체’가 아니라, 기억과 지식을 기계들에게 위임한 사유 무능력자, 즉 과거에 기초하여 미래를 변화시켜가는 개인적 집단적 예지 능력이 박탈된 프롤레타리아들을 산출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본래 생명적 개체와 심리적 개체에 ‘연합된 환경(associated milieu)’은 단순히 ‘외부 환경(environment)’이 아니라, ‘체화되고(embodied) 뿌리박혀 있는(embedded) 삶’의 존재 조건이며, 관계체적인 것으로 변환할 수 있는 잠재적인 바탕이다. 그리고 관계체적인 심리적-집단적 개체화와 더불어 생산되는 것은 새로운 ‘지식’과 ‘사회적 구조들’이다. 그러나 디지털화된 ‘연합환경’은 오히려 문화와 지식 형성을 위한 관계체화 과정을 해체하고, 파지와 예지의 지적 종합 능력이 사라진 탈개체화된 ‘가분체들(dividuals)’—심리적 집단적으로 개체화된 존재(individual)가 아니라 분석적으로 분해되고 확률 계산적으로 소집되고 구성되는 데이터집합체—를 산출한다. 스티글레르는 이런 탈연합되고 탈유기화된 상징적 환경(dissociated disorganized symbolic milieu)에 놓인 인류적 곤경—그러나 기억의 기술적 외재화와 체외기관화가 불가피하게 야기하는 곤경—을 축소시키는 생명적 기능으로서 앞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V. 기억기술의 전환: 계산에서 돌봄으로

우리의 사유, 즉 인간의 지성적 활동은 일차적으로 ‘삶에 주의하는 의식’이다. 삶에 기여하는 앞은 ‘무한한 것(infinite)’과 ‘예측할 수 없는 것(improbable)’에 열려있어야 한다. 이런 앞이, 데이터 경제와 더불어 소멸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록작용을 통해서 계산가능한 정보로 변형되고 있다. 스티글레르는 마치 탈이난 몸을 돌보면서 망가진 정신력을 회복하듯이, ‘주의와 지성적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 단계 기술적 파르마콘을 돌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디지털 기술환경에 단순히 저항하거나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외기관을 돌보는 새로운 기술적 실천들을 적극적으로 ‘채택(adoption)’하는 것이다.

완전 자동화의 구축으로 “조직 전체에 침투된 어리석음(systemic stupidity)”과 “범 바보화(generalized stupefaction)”²⁷가 실현되기 전에, 모든 외재화가 불가피하게 독이 되지 않고 재-내면화 과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디지털 도구(휘폼네마타)의 발명’을 통해 지성적 삶을 돌보자는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하이퍼-물질적인 체외기관화의 차원에서, 자동화 기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탈-자동화의 가능성을 열고자 하는 것이다.

디지털 파르마콘의 전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디지털화가, ‘지식’과 ‘주위’를 돌보는 새로운 해석학적 기술들의 발명에 의해서, 대체보충될 수 있을까? 스티글레르가 신랄하게 비판한 디지털 기술기억의 과도한 지배력(독)으로부터 어떻게 새로운 탈출구와 전환의 가능성(약)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스티글레르는 『자동화 사회 2: 지식의 미래』에서 현 단계 기억기술의 위기 상황(자동화 사회, 알고리즘 통치성, 계산적 정보주의, 인류세)을 역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식’, 즉 새로운 관계체화의 회로를 만들고 새로운 사유 범주들과 형상을 도식화하는 새로운 기억매체들의 가능성에 대해 다룰 것이라 예고했지만, 안타깝게도 출간되지는 못했다.²⁸ 그러나 기억기술매체를 단순히 정보 기록의 계산적 도구가 아니라 ‘삶에 주의하는 돌봄’의 도구로 전환하자는 스티글레르의 아이디어는 —스티글레르도 살짝 언급하고 지나갔지만²⁹ — 휘폼네마타에 대한 푸코의 성찰에서도 그 실현 근거를 엿볼 수 있다.

푸코는 「자기 수양」에서 기억의 기술적 매체인 휘폼네마타가 자기 자신을 돌보는데 필수적인 도구라는 점을 주장한다.³⁰ 그에 따르면, 플라톤 『파이드로스』의 핵심은 기억의 단련과 대립된다는 이유로 글쓰기를 비판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기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글쓰기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파일을 날려버린 컴퓨터의 오작동에 대해 화풀이하는 정도의 사소한 문제다. 중요한

27. Stiegler, “Automatic Society”, *Episteme* (14), 2015, p. 9.

28. 스티글러, 『자동화 사회 1: 알고리즘 인문학과 노동의 미래』, 김지현 외 옮김, 새물결, 2019, 140쪽. 매우 안타깝게도 비판적 지식인이자 통찰력 있는 기술철학자 스티글레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8월 5일 갑작스럽게 운명했다.

29. Stiegler, *Nanjing Lectures, 2016-2019*, Open Humanities Press, 2020, p. 279.

30. 푸코, 『비판이란 무엇인가? / 자기 수양』 심세광 외 옮김, 동녘, 2016.

것은 “이 답론이 진실(진리)과 연동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는 것”³¹이다. 이때 진리와의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자기 수양 및 자기 실천의 문제이다. 이것은 데리다-스티글레르가 이해하고 있는 플라톤의 ‘자발적 기억의 활동’에 해당한다. 그런데 푸코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항상 ‘너 자신을 돌보라’는 뜻이었고, 스토아학파의 자기 수련에서도 자기 인식은 늘 자기 돌봄과 관련되며, 휘폼네마타는 이런 자기 돌봄의 맥락에서 자기와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푸코는 휘폼네마타를 자기 자신에 대해 적는 “수첩, 공책”이라고 해석한다.³² 그것은 자신이 기억해야 할 격언들, 인식하고 행해야 할 것들의 모음집, 읽은 책을 메모하고, 스승의 교훈을 적고,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항상 지켜야 할 규칙들을 적어 넣는 공책, 그래서 늘 다시 들여다보면서 내면화해야 하는 규칙들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물질적 장치’인 것이다. 휘폼네마타는 기억 활동을 방해하고 진리 의미를 왜곡시키는 ‘글쓰기’가 아니라, 망각된 규칙들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자기와의 진실된 관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장치’이다. 푸코에 따르면, 휘폼네마타는 단지 ‘죽은 지식’의 전달 도구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발적 기억’을 활성화하면서 진리와의 관계에서 자기를 돌보고 나아가 타자를 돌보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적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³³

이와 같은 맥락에서 스티글레르도 기억기술적 매체들이 삶을 돌보는 앎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긍정한다. PC, 아이팟, 스마트폰, 노트북, GPS 등이 연합된 환경인 인터넷은 그 자체로 파르마콘이기에, 이윤추구에 포획된 ‘계산(computation)’의 도구(독)로 머무를 수도 있지만 역시 지식공유에 기반한 ‘돌봄(care)’의 도구(약)로 방향 전환될 수도 있다. 스티글레르는 ‘프리웨어’나 ‘해석 웹’ 같은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기술적 발명을 그 가능한 사례로 제시한다. ‘프

31. 위의 책, 190쪽.

32. 위의 책, 189쪽.

33. “휘폼네마타는 독서나 기억 훈련에 힘입어 말해진 바를 다시 상기할 수 있기 위해 하는 기억의 요약 메모를 의미합니다. 이 휘폼네마타는 자기 자신에게 유용하지만 타인에게도 유용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푸코, 『주체의 해석학』, 심세광 옮김, 동문선, 2007, 387쪽)

리웨어'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그 사용과 연구, 수정, 복제, 배포가 기술적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그것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기여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완된다. '해석 웹'은 스티글레르가 실제로 학생들과 운영한 것인데, 강의 노트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각자 제공하며 공동지식에 기여하는 플랫폼으로서, 소비되고 폐기되는 애플이 아니라 공유되고 계승되고 확장되는 애플의 가능성을 찾기 위한 시도, 디지털 스티디네트워크의 비-자동화된 특성을 살려내고자 한 시도이다.³⁴ 고도로 발전한 기술적 자동성을 탈-자동화의 계기로 변환시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이퍼-물질적인 기술의 차원에서 가능하다. 기술적 자동성은 생물학적 자동성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기술이 몸과 사회에 가져 온 체외기관화된 애플로서 교육과 학습에 의해 전달된다. 이 자동성을 습득하고 내면화해야 한층 더 나아간 비-자동화된 창조적 일을 할 수 있다. 광범위한 궁핍화를 가져오는 자동화에 '중독'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자동성을 익히고 활용하여 비-자동화의 발명적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치유'하는 작업이 현 단계 자동화 사회에서 요구된다.³⁵

그러나 디지털 연합환경의 잠재성을 독에서 약으로 전환시키고, 자동화 역량으로부터 비-자동화 역량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쟁과 소비를 가속화하며 삶을 궁핍화하는 '무관심(돌보지 않음)의 경제 체제'로부터, 개인과 집단이 관계체적 관계 속에서 모든 종류의 애플을 나누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여 경제(contributive economy) 체제'로의 전환이 또한 필요하다고 스티글레르는 역설한다. 사용가치나 교환가치에 국한된 '소비주의 모델'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으면서 동시대뿐 아니라 세대를 가로질러 공유되며 애플의 가치를 높여주는 '실용가치'를 창출하는 '기여모델'로 사회적 시스템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⁶ 그것이야말로, 더 이상 '고용된

34. 스티글레르·키루, 『고용은 끝났다, 일이어 오라!』, 권오룡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8, 44쪽, 73쪽.

35. 위의 책, 62~70쪽.

36. 스티글레르는 자동화 시대에는 고용으로 환원된 '노동'을 강요하는 무관심의 경제체제가 아니라, 자기 소유의 '일'을 하며 '기여 소득(contributive income)'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기여경제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여소득이란 각자의 독특성과 잠재성을 실현하면서 사회적 가치가 있는 애플의 형태

노동(무사유의 궁핍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일’을 하는 삶, 기술적 도구들을 ‘사용할 줄 알고’ 성취의 기쁨과 앓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삶’을 실현하는데, 자동화 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VI. 나가는 말

스티글레르는 기술적 대상들을 하이퍼-물질적으로 외재화된 기억이자 체외 기관화된 지성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디지털 정보기술과 지식의 관계를 계산과 통계가 아닌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파르마콘적으로 재사유할 수 있게 한다. 자동화 기능에 포획된 주의를, 해석하고 발명하는 지성적 사유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계산가능한 데이터량으로서의 지식으로부터, 공유하고 계승하며 함께 삶을 돌보는 지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지금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동화 기술의 역량을 이윤의 포획으로부터 해방시켜 탈자동화 역량의 토대로 전환시켜야 한다... 스티글레르의 이러한 외침은 긴박하며 정언명령의 호소력을 갖는다.

인간은 기술적 존재다. 살기 위해서 인공기관들을 생산해야하고, 이 인공기관들에 대해 실천적으로 배워야하며, 이를 위해 세대들 사이에, 현재와 미래의 기관 생산자와 실천자 사이에 관계를 이어주는 문화와 사회적 조직들도 제도화해야 한다. 아직 오지 않은 것, 예측하거나 계산할 수 없는 잠재적 바탕(과거이자 미래)으로부터, ‘양자적 도약’나 ‘사건’의 출현처럼, 세 기관들(심리적 개체의 체내기관들, 기술적 시스템의 체외기관들, 교육적이고 규범적인 사회조직들) 사이의 변환적 관계를 창조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진리’는 그런 탐색과 발명의 ‘이념적인 또는 혼적으로서의’ 기준일 뿐이다. 진리는 순수한 자발적 기억을 통해서만 도달될 수 있는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외재화와 재내면화의 반복 속에서 전승과 변형을 통해

들을 산출하는 ‘일(고용된 노동이 아닌)’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위의 책, 92~95쪽, 116~117쪽)

재생되고 재해석되면서 달라지는 이념으로 존재할 뿐이다. 진리의 역사는 하이퍼물질적-체외기관적으로 기입되고 새로운 관계체화의 양상(지식의 유형)으로 달라지며 반복된다, 즉 차연된다. “그래서 진리는 모든 지식(사는 법, 행하는 법, 해석하고 생각하는 법에 대한 지식) 안에서 위태롭다.”³⁷ 문자적 주의 형태들이 기하학, 물리학, 법, 철학, 역사, 문학 등 각기 고유한 규칙을 가진 학문적 형태들로 정교화된 관계체화의 회로들을 발생시켰듯이, 디지털 주의 형태들은 새로운 형태의 관계체화 회로들을 발명해야 할 것이다. 포스트-트루스의 자동화 시대에 정체된 바로 그 발명의 가능성을 개방해야 한다. 기관-논리적이고 파르마콘-논리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정보 자동화 사회의 지성과 지식 상태를 사유한다는 것은, ‘중독’으로부터 ‘치유’로, 기술적 장치들에 대한 ‘무관심’으로부터 ‘관심’으로의 전회를 통해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개방하려는 노력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일시 정지는 디지털 자동화 시대의 가속화가 낳은 독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우리의 삶에 연합되어 있는 정보기술네트워크는 더 이상 상업적 계산과 이윤추구의 도구가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관계체적 관계를 돌보면서 공동의 삶을 구축하기 위한 삶의 매체로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인류의 전환점에서, 디지털 정보기술에 대한 스티글레르의 파르마콘-논리적 사유는, 예기치 않게 코로나(독)가 가져다 준 ‘지연된 시간’(약) 속에서 자기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지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돌보면서’, 인류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휘폼네마타와 새로운 기억기술 체제를 발명해야 할 것인지 숙고하게 한다.

37. Stiegler, *Nanjing Lectures 2016-2019*, Open Humanities Press, 2020, p. 293.

참고문헌

- 김재희, 「기술과 개체초월성: 시몽동과 스티글레르」, 『범한철학』 제88집, 2018, 195~219쪽.
- 신상규, 「자율기술과 플로리디의 정보윤리」, 『철학논집』 제45집, 2016, 269~296쪽.
- 홍성연·유연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교육환경에서 학습성과 영향 요인 분석」,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6(3), 2020, 957~989쪽.
- 리 매킨타이어, 『포스트트루스: 가짜뉴스와 탈진실의 시대』, 김재경 옮김, 두리반, 2019.
- 베르나르 스티글러, 『자동화 사회 1: 알고리즘 인문학과 노동의 미래』, 김지현 외 옮김, 새물결, 2019.
- 베르나르 스티글레르·아리엘 키루, 『고용은 끝났다, 일이어 오라!』, 권오룡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8.
- 미셸 푸코, 『주체의 해석학』, 심세광 옮김, 동문선, 2007.
- _____, 『비판이란 무엇인가? / 자기 수양』, 심세광 외 옮김, 동녘, 2016.
- Derrida, J., *La Dissémination*, Éditions du Seuil, 1972.
- Floridi, L., *The Ethics of Information*, Oxford, 2013.
- Leroi-Gourhan, A., *Le geste et la parole*, 2 vols. Albin Michel, 1964-65. (『행위와 말1』, 『행위와 말2』,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2016.)
- Stiegler, B., “Temps et individuations technique, psychique et collective dans l’œuvre de Simondon”. *Intellectica*, 1/2, n° 26-27, 1998.
- _____, *Technics and Time, 1: The Fault of Epimetheus*, Trans. R. Beardsworth and G. Collin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 _____, *What makes life worth living: On pharmacology*, Cambridge, UK: Polity, 2010.
- _____, “Relational ecology and the digital pharmakon”, *CULTURE MACHINE*, VOL 13, 2012.
- _____, *Symbolic Misery*, Polity Press, 2014.
- _____, “Automatic Society”, *Episteme* (14), 2015.
- _____, “What is called caring? beyond the anthropocene” *Techné: Research in*

Philosophy and Technology, 21:2-3, 2017.

_____, *Nanjing Lectures 2016-2019*, Open Humanities Press, 2020.

안상우, 「코로나 학력 저하 첫 확인」, 『SBS』, 2021.06.02. (<https://news.v.daum.net/v/20210602203915794>, 2021년 6월 2일 접속)

오중호, 「코로나19 비대면 원격수업 여파와 과제는?」, 『KBS』, 2021.05.1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87723>, 2021년 5월 17일 접속)

최상원, 「코로나 온라인 수업 뒤 초등생 학력 ↑, 고등생 ↓」, 『한겨레』, 2021.05.17.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995608.html>, 2021년 5월 17일 접속)

Abstract

The Pharmacological Meaning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Knowledge as Care in Stiegler

Kim, Jae-Hee (Eulji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This paper explicates Stiegler's critical diagnoses of digital information technology and his solutions to it, and examines their significance. Algorithmic governance and total automation are based on the concept of computability and information as amount of data. They capture the attention to life, resulting in the impoverishment of intellectual capacity and knowledge. Therapeutic work is required to restore the ability of knowledge so that creative activities utilizing technological automatism can be carried out. According to Stiegler, technological objects as exteriorized exosomatic hyper-material memory are pharmakon(poison/remedy). In order to transform the potential of the digital associated milieu as a poison to that as a remedy, and to derive non-automated capabilities from automated technology, we need to rethink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d knowledge from the perspective of sharing and inheriting knowledge and caring for life, not from the perspective of profit-seeking calculations.

Keywords: Stiegler, Pharmakon, Information Technology, Knowledge, Care

논문 투고일 : 2021년 07월 30일
심사 완료일 : 2021년 09월 30일
게재 확정일 : 2021년 10월 05일